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 임지연 연구위원

Vol.13 2014. 0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개요 ▶▶▶

| 조사목적 |

- ▶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과 경험 상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살피고, 학업중단 후 이행경로 파악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 및 유형별 분포,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부적응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함.
- ▶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과 이행경로 파악을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패널조사 1차년도인 2013년도 연구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패널 구축, 조사도구 개발, 분석모형 탐색,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간 집단비교를 통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임.

| 조사대상 |

- ▶ 학업중단 기간이 조사시점에서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474명
- ▶ 보호관찰 기간이 조사시점에서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보호관찰 청소년 190명

| 조사방법 |

- ▶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원에 의한 설문지 활용 대면면접 조사
- ▶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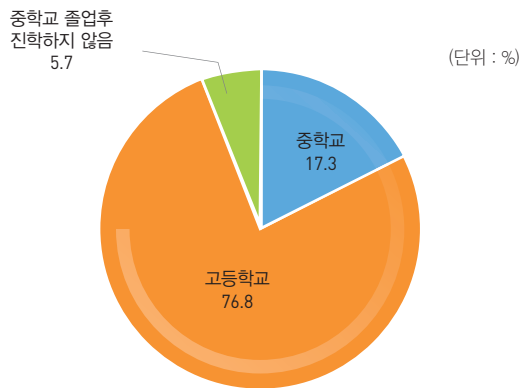
| 조사기간 |

- ▶ 2013년 6월~8월

학업중단관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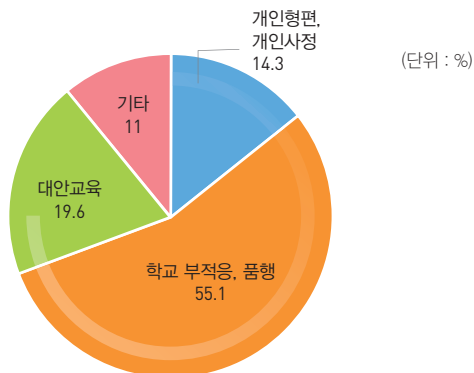


- 학업중단 청소년의 76.8%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둠([그림 1] 참조).



[그림 1] 학업중단 시기

- 학업중단 이유는 응답 1순위 기준으로 볼 때 개인적 형편이나 대안교육 선호보다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17.7%), 공부하기 싫다(14.6%)는 학교요인이 55.1%로 나타남([그림 2] 참조). 특히 학교에 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는 1순위~3순위에서 각기 높은 응답빈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갖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됨을 알 수 있음(〈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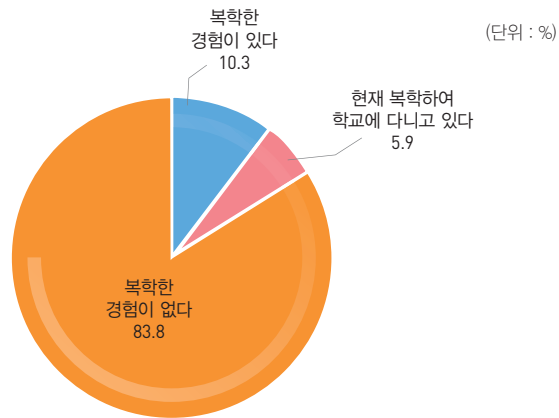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 이유

[표 1] 학업중단 이유 (N=474명)

구분	응답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가정형편 /개인사정	건강상의 이유로	31	6.5	9	1.9	6	1.3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7	3.6	25	5.3	18	3.8
	가정불화 때문에	12	2.5	9	1.9	10	2.1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8	1.7	13	2.7	8	1.7
학교부적응 /품행문제	공부하기 싫어서	69	14.6	44	9.3	28	5.9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4	17.7	87	18.4	53	11.2
	친구들이 싫어서	20	4.2	19	4.0	15	3.2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6	1.3	32	6.8	17	3.6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따라 놀고 싶어서	7	1.5	15	3.2	10	2.1
	선생님이 싫어서	27	5.7	33	7.0	34	7.2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41	8.6	15	3.2	15	3.2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7	1.5	3	0.6	4	0.8
대안교육 선호	검정고시를 하려고	43	9.1	54	11.4	58	12.2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50	10.5	40	8.4	37	7.8
기타		52	11.0	7	1.5	8	1.7
모름/무응답		—	—	69	14.6	153	32.3

- ●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교 복교를 경험하였거나, 복교하여 재학 중인 청소년 비율은 16.1%임. 학업 중단 후 복교까지의 소요기간은 6개월 이내가 41.6%로 가장 많았으며 복교생의 75% 이상이 종전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교하였음([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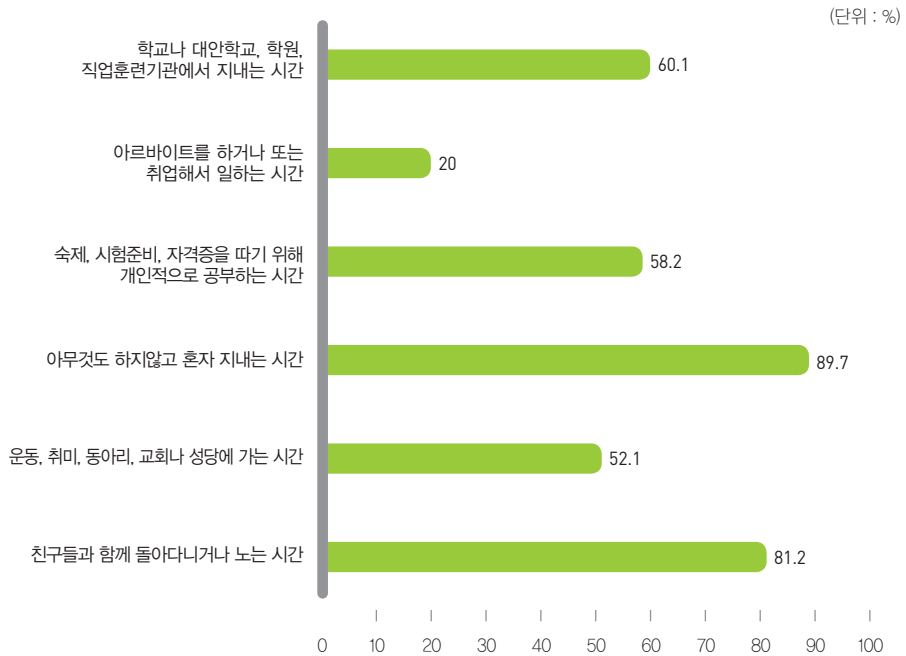


[그림 3] 학교 복교 경험

학업중단 이후의 삶



-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생활영역별 시간 소비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학업 혹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60.1%, 아르바이트나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은 20%를 차지함. 여가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청소년이 각각 89.7%, 81.2%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데 비해 개인적인 공부나 운동 등 활동을 하는 경험 비율은 이 보다 낮았음(그림 4) 참조).



[그림 4] 일상 생활시간 영역별 경험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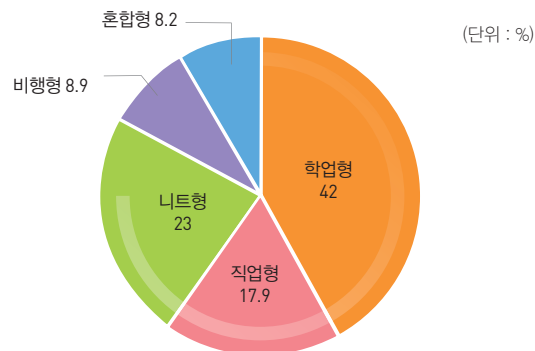
- 학업중단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80.4%),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74.3%)는 등 상당수가 학업중단을 후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59.7%). 이와 동시에 과반수는 지인에게 학업중단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48.9%), 학업중단으로 문제아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58.4%)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변인의 시선에 민감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표 2) 참조).

[표 2]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단위 : %)

문항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474	16.9	34.2	35.4	13.5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474	13.3	28.3	40.7	17.7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474	32.9	40.1	22.2	4.9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했)다.	474	4.0	15.6	50.8	29.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했)다.	474	26.4	33.3	26.6	13.7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474	5.7	20.0	49.8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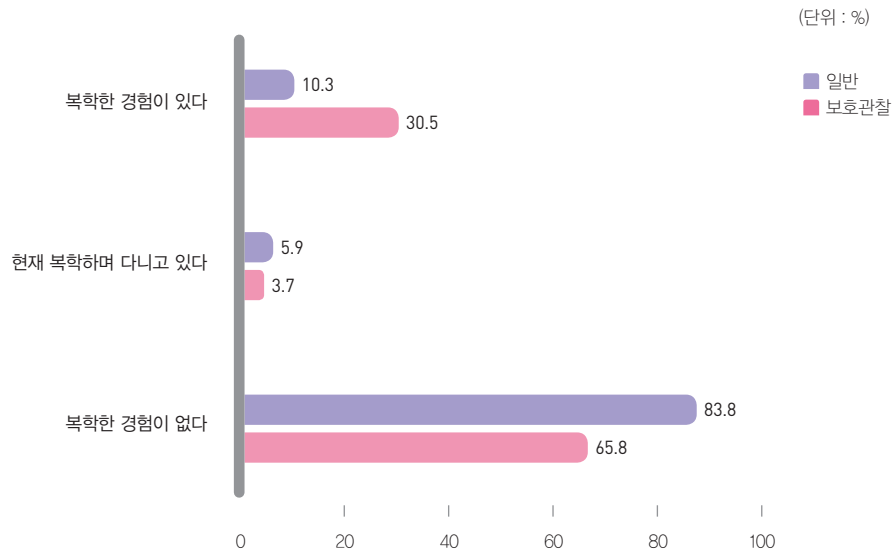
- 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경험을 토대로 경로를 구분하면, 학교에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학업에 초점을 두는 학업형 42%, 학업이나 직업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노는 니트형(무업형) 23%,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일을 하는 직업형 17.9%, 가출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비행형 8.9%, 기타 혼합형 8.2%로 구성됨([그림 5] 참조).



[그림 5] 학업중단 이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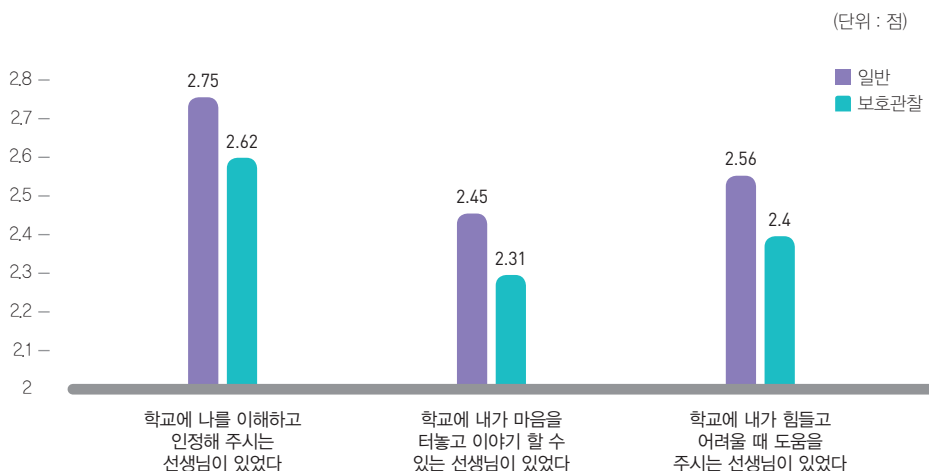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특성(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

-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 청소년의 복학 경험율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약 3배 높은 30.8%을 보이고 있는데([그림 6] 참조),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던 표본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자퇴와 복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6] 복학경험 여부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교사와의 관계를 보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점을 보여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가 더 강함을 알 수 있음(그림 7 참조). 또한 학교부적응 관련 문항 중 '학교수업을 이해하기 힘들다'에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평점보다 0.29점 높은 2.62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표 3 참조), 무단결석 등 학교 규정위반 경험률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7] 교사관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평균

[표 3] 학습부적응

학습부적응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값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일반	474	2.82	.873	-1.237
	보호관찰	190	2.91	.847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일반	474	2.52	.892	-.096
	보호관찰	190	2.53	.877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든 일 이었다.	일반	474	2.33	.975	-3.474***
	보호관찰	190	2.62	.939	

*p<0.1 **p<0.05 ***p<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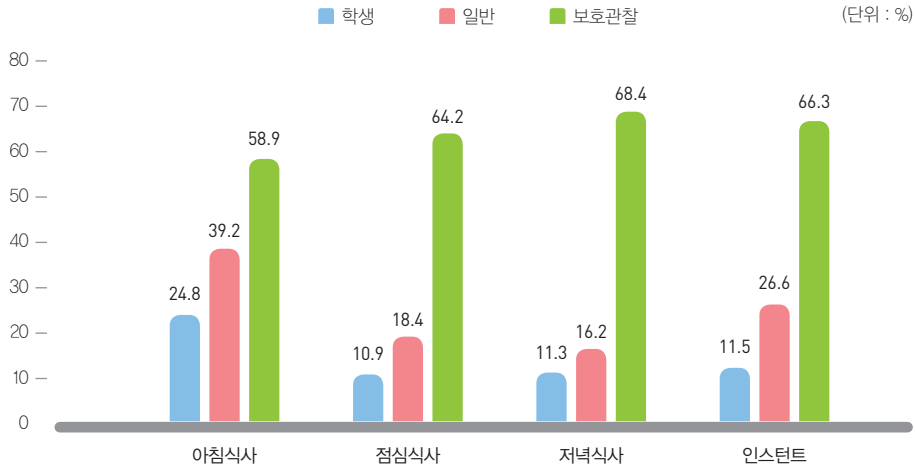


- 보호관찰 청소년의 일상생활 시간에서의 영역별 경험을 비교하면 학업경험은 적고(일반 60.1%, 보호관찰 13.7%), 경제적 활동 경험은 많음(일반 20.0%, 보호관찰 28.4%). 여가시간에는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더 많은 것(일반 89.7%, 보호관찰 75.3%)과 달리 보호관찰 청소년은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경험이 더 많음(일반 81.2%, 보호관찰 80.0%)

[표 4] 일상 생활시간 영역별 경험 빈도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문항	경험 있음			
	일반(명)	일반(%)	보호관찰(명)	보호관찰(%)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285	60.1	26	13.7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하여 일함	95	20.0	54	28.4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276	58.2	47	24.7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425	89.7	143	75.3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247	52.1	68	35.8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385	81.2	152	80.0

- 보호관찰 청소년의 주 5일 결식률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현격하게 높는데, 특히 저녁 결식률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일반 16.2%, 보호관찰 68.4%). 또한 주 3회 이상의 인스턴트식품 섭취율도 훨씬 높아(일반 26.6%, 보호관찰 66.3%) 보호관찰 청소년이 비교적 불규칙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8] 주 5일 이상 결식을 집단비교: 학생 vs 일반 vs 보호관찰

-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더 알고 싶지 않고(일반 48.9%, 보호관찰 69.5%),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어서 더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일반 27.1%, 보호관찰 37.4%). 현재 생활의 만족도 역시 일반 청소년 집단의 절반 수준인 47.9%로 낮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인식도 낮으며, 학교를 안 다니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음.

[표 5]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집단비교: 일반 vs 보호관찰

문항	긍정적 응답			
	일반(명)	일반(%)	보호관찰(명)	보호관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232	48.9	132	69.5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277	58.4	126	66.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128	27.1	72	37.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381	80.3	91	47.9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191	40.3	137	72.1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247	74.3	81	4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